교회생활을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킴

메시지 3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함

성경구절: 요 17:19; 4:6-7, 27; 엡 5:26-27; 민 6:3-4; 살전 5:23; 4:4; 삿 13:12-14

I. 아들 자신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본을 세우시기 위해 생활 방식에서 여전히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요 17:19, 엡 5:26-27.

A. 그분은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상충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요 17:19.

B. 많은 일들과 제자들의 연약함은 주님을 통제했고 주님의 자유를 제한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으나 제자들이 오해하고 넘어질까 봐 행하지 않으셨다—요 4:6-7, 27.

C.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위치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되어야 한다—마 23:17.

1.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 친구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될 필요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분별되지 않았다—딛 2:14, 참조. 느 13:23-24, 30.

2.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분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이다—롬 1:2 각주 3.

II. 자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한다.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자녀들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다—요 17:17, 19, 민 6:1-12.

A. 만일 이 세대의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가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수많은 강한 믿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의 장래는 부모들에게 달려 있다—살후 3:9, 빌 3:17.

B. 나실인은 반드시 술과 술의 근원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은 정욕의 행위와 정욕의 생각으로 이끈다—민 6:3, 사 13:2-20, 시 104:15, 전 10:19, 딤후 2:22, 3:1-5.

C.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과 행위와 옳고 그름과 관련된 모든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함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 높은 표준을 정해야 하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신을 위해 하나의 표준을 세워두어야 한다—살전 5:23.

1. 자녀는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반드시 끝까지 그의 속에 남아 있다. 그는 우리에게서 자신의 판단력을 세우며 또한 우리에게서 자신의 가치 체계를 세운다—고전 9:27.

2.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의 행위는 자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생활 전체는 다 그들의 부모의 행위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딤후 1:5, 3:15.

3.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말을 거룩히 분별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가 말할 때 그들 또한

자신의 말을 거룩히 분별함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면 반드시 엄중하게 우리 자신이 잘못했음을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말을 거룩하게 분별하도록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딤전 4:12.

D. 부모는 반드시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우리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장래 하나님께 응답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전 9:25, 갈 5:22- 23.

E. 자녀를 진심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려는 사람은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다고 해서 자녀를 하늘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 앞에서 걸어가야 한다–고전 9:27, 롬 2:21.

1. 에녹이 므두셀라를 낳은 후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 가정의 무거운 짐이 그에게 지워졌을 때, 그는 그의 책임이 너무 커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창 5:21-22.
2. 삼손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룩하게 나실인으로 분별되었다. 삼손은 모친의 태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일생 동안 나실인이었다–사 13:7.
3. 한나의 필사적인 기도는 주로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하나님께, 만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그 아이를 그분께 돌려드리겠다고 서원했다–삼상 1:11, 22, 28.
4. 롯의 자녀들은 악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패하였다–창 19:15.

F.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그릇은 반드시 거룩하고 분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으로 적셔져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살전 4:4, 롬 13:14.

III. 구약과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제거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다–창 35:1-2, 행 19:19-20.

A. 야곱은 집안의 모든 이에게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했다. 우리는 이방 신들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전 존재와 생활 방식과 표현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창 35:2, 고전 7:1.

B. 이방 신들을 버리는 것과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더하여 야곱의 가족은 그들의 의복을 바꾸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창 35:2, 계 22:14 상.

C. 출애굽기 32 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는 이스라엘 집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귀에 달려 있던 금귀고리였다. 이 장의 기록은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다–1-3 절.